

일 주 문

익산 미륵사지 사리장엄 특별전
양산 통도사 주지 원학 스님은 3월 29일 익산 미륵사지 사리장엄 특별전 관람 순례를 개최한다. (055)382-7182

제54회 팔만대장경수호 정대불사
합천 해인사 주지 선해 스님은 4월 8~9일 1박 2일간 제54회 팔만대장경수호 정대불사를 거행한다. (055)934-3105

제114회 보살계 수계산림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4월 13일 범어사 대웅전에서 제114회 보살계 수계산림에 입재한다. (051)508-3636

쌍계사 꽃맞이 템플스테이
하동 쌍계사 주지 성조 스님은 3월 29~30일 쌍계사 벚꽃길 트레킹을 겸한 꽃맞이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055)883-1901

금산사 미륵전 보수공사 성료
김계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은 3월 중순 미륵전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차단막 제작식을 개최했다. (063)548-4441

화엄선재학당 개당
구례 화엄사 주지 영관 스님은 4월 15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화엄선재학당을 개강한다. (061)783-7600

서산대사 탄신 494년 서산대제
해남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은 4월 25일 대흥사 보현전 특설무대에서 서산대사 탄신 494주년 서산대제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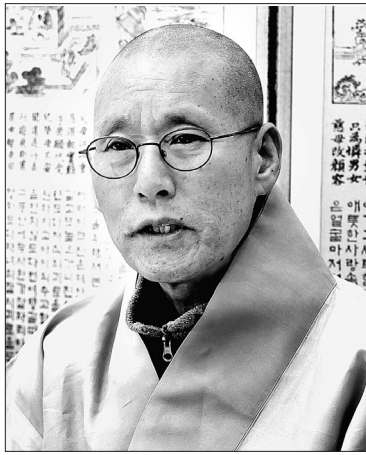
조계종 노동위 경전 강좌
조계종 노동위원회 위원장 종호 스님은 3월 21일부터 매주 셋째주 금요일 서울 제마나와선원에서 노동자 대상 경전 수업을 개최한다.

동국대 일산 바이오메디칼캠퍼스 착공
김화옥 동국대 총장은 3월 20일 일산 동국대 병원에서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의 바이오메디칼캠퍼스 기숙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대승기신론> 특강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는 3월 7일부터 불교여성개발원 강의실에서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40주 강의로 <대승기신론> 특강을 하고 있다. (02)732-2403

“가족이 함께하는 휴식사찰로”

취임 100일 맞은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



서울 강남의 대표사찰인 봉은사가 가족이 함께 쉬며 문화생활과 신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휴식사찰로 거듭났다. 서울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3월 18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봉은사 발전계획을 밝혔다.

원학 스님은 “선종수사찰 봉은사의 정체성을 살리고 매년 늘고 있는 신도들의 신생활을 지원하는 수행·문화사찰로 거듭나고자 한다”며 “특히 문화포교, 교육포교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원학 스님은 주지 취임 이후 매 예불에 참여하고 매주 교양대학 특강을 직접 챙기고 포살법회도 집전하는 등 신도교육에 관심을 쏟았다. 봉은사는 법문 형식의 법회를 경전 강의 방식으로 바꿔 출가열반제일 법회에서는 원학 스님이 <유교경>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스님은 “특히 봉은사가 신도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 행정편의 시스템 등을 구축하겠다. 사찰에 와서 편히 쉬어가고 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사찰에서 신도들은 자연스럽게 자부심을 느낄 것”이라며 “템플스테이와 함께 단기 체험인 템플라이프를 활성화 해 이러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넓혀겠다”고 말했다.

자연 친화 가람 정비 추진

스님은 봉은사를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사찰로 가꾸기 위해 기존에 수립된 봉은사 가람정비 계획을 자연 친화적으로 수정할 계획이다. 봉은사는 2008년 ‘봉은사 가람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세부안

문화포교 기지, 경전 강의 등 진행
늘어나는 신도, 열성신도 확보 중점
도심 휴식사찰로 장기 플랜 계획 중
수행·생태 환경 중심으로 가람정비

을 마련한 바 있다.

스님은 “기존 가람정비 계획에는 지상에 너무 많은 건물이 들어선다”며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행사찰의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지상건물은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봉은사는 가람정비를 위해 불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스님은 “지상은 전통사찰로서 조경 사업을 통해 산중 사찰 분위기를 내며, 지하 공간에 현대식 건물이 들어설 것”이라며 “2016년 현재 웨딩홀로 사용되는 문화센터가 인수되는 만큼 이 공간을 신도교육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봉은사는 가람정비의 시작으로 요사채 및 공양간 신축공사에 들어간다.

스님은 “현재 스님들 요사채 및 공양물을

만드는 식당이 수십년 전에 지어진 조립식 가건물로, 이런 건물이 많다”며 “바깥에서 보면 봉은사의 위상과 현실이 너무 달라 놀랐다”고 말했다.

스님은 직접 서울시장을 면담하고 구청을 방문해 정식으로 문화재 현상 변경을 신청한 상태다. 요사채 및 공양간은 지하1층과 지상1층 건물로 2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5월까지 착공될 예정이다.

스님은 “주지로서 부딪혀 보니 규제가 한두 건이 아니다”며 “누가 주지를 해도 해야 할 일이기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도공간 확보 주력... 신도 배출 중점

스님은 이러한 신도들의 활동 공간 확보가 열성신도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를 표했다.

스님은 “자연스럽게 신도들의 활동이 증가 할 것으로 본다. 봉은사에 등록된 신도수만 25만명에 달하는데 실질적인 수행사찰로 봉은사가 자리하기 위해 불사와 함께 가족법회, 신도네트워크 등도 신경을 써서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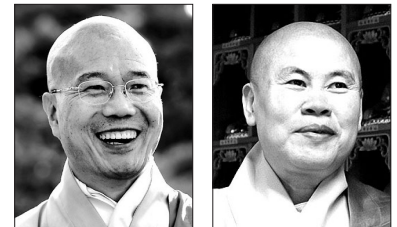
현재 봉은사의 경우 매년 3500 세대가 새신도로 가입 중이다. 이중 1000여 명만이 기초학당 교육을 이수받고 있다. 봉은사는 새신도 전담캠페인을 펼쳐 교육과정 편입되지 않은 신도들을 적극적으로 이끌 예정이다. 주지 스님이 직접 하반기부터 ‘동다송’ 강의에 나서는 등 신도입문 과정이 중점 관리된다.

원학 스님은 끝으로 “봉은사는 서울시민의 휴식처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서 국민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역사문화 명소”라며 “한국불교와 한국문화를 알리고 불자들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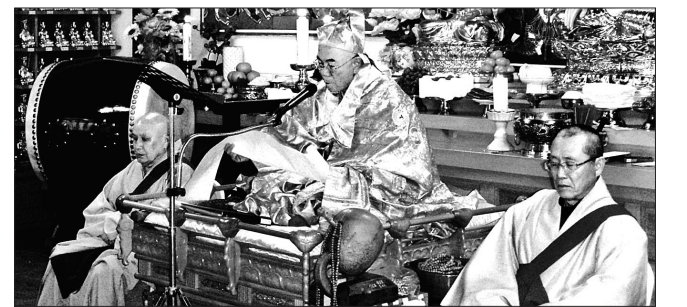
불교방송 문자서비스 다양화

법현·해성 스님도 함께해



불교방송의 문자서비스가 스님들의 다양한 법문을 전달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문자 서비스에는 올해 초부터는 필력 있는 스님들이 대거 가세 불자들에게 아침편지를 전하고 있다. 카페 목탁소리 운영자 법상스님의 경우는 팔로워가 5백여명에 이를 정도로 호평을 받고 있으며, 월호, 지광, 서광스님 등도 신도들을 중심으로 인기몰이에 나섰다. 여기에 방송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는 법안, 성담, 승한, 원빈, 해성, 법현, 정우스님 등도 함께한다. 이밖에 재가불자들인 김형진 변호사, 권대웅 시인, 이경남 명상 지도자, 박은구 요가 지도자 등의 편지도 청취자들의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 정혜숙 기자

한국대승불교조계종 건당 수여식



한국대승불교조계종(총무원장 취임)은 3월 20일 종단 본산인 창녕 불국사 대법당에서 ‘종단 구축계 및 건당 수여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종정 봉진스님을 대법사로 모시고 종단 임원 및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수계를 받은 14명의 스님들은 전법계를 수지하고 부처님의 청정계율을 받들어 수행정진할 것을 다짐했으며 봉진 종정스님은 ‘승가의 지엄한 계율을 지켜 한국불교의 기둥이 될 큰 인재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노덕현 기자

금강대·섬서사범대와 공동협약



금강대는 3월 20일 중국 시안의 섬서사범대 엔타(雁塔) 캠퍼스에 정병조 총장 일행이 방문하여 한국문화교육센터 설치를 위한 공동협약 체결 및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섬서사범대 팡위 총장의 관계자 7명, 전재원 중국 시안 대한민국 총영사 외 2명, 금강대 정병조 총장의 5명 등 관련 인사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양 대학은 학생 및 현직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및 문화 교류에 앞장설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매일 1천배로 체력 다져...부대배치는 인연따라”

첫 비구니 군승 명법 스님 3월 18일 기자회견

“억압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군 장병들에게 편안함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비구니 군승이자 최초의 군종장교에 선발된 명법 스님(사진)이 군생활의 각오를 이야기 밝혔다.

명법 스님은 3월 18일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원광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승려라면 마땅히 포교에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참에 여성 군종장교가 생겨 과감하게 지원했다”며 “여성 군종장교인 만큼 그동안 비구 스님이 하기 쉽지 않았던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겠다. 특히 갈 수록 늘어나는

여군들의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명법 스님은 희망 근무지역에 대해 “인연에 따라가게 된다”고 답하며 “다음달 9주간 군사교육 임소를 앞두고 기초체력을 다지기 위해 짬짬이 땀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시에 살생을 할 수도 있는데 불교의 계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명법 스님은 “신라시대에는 호국불교가 있었다. 살생유력, 먹기 위해 또는 나를 위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과정



에서 부딪쳐야 한다면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1980년 태어난 명법 스님은 1999년 19세에 마곡사를 재적 본사로 출가해 2000년 사미니계를 받았다. 그후 2006년 동학사 승가대학 졸업, 2010년 어산작법학교 졸업, 2014년 2월 동국대학교 불교학부를 졸업했다.

한편, 이번 군종장교들의 임명은 4월 22일 괴산 육군학사생군사학교에서 이뤄진다. 이나은 기자

생전 예수재 기도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생전 예수재는 살아 있을 때 사후(죽은 뒤)를 위하여 공덕을 쌓아서 지옥고를 받지 않고, 극락왕생하도록 법의 공덕을 저축하는 의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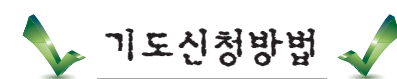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전예수재가 사후의 극락도 보장하지만, 살아있을 때, 전생의 빚을 갚는 의식을 겸한 재료써, 이 재를 지내면 그시점부터, 단계적으로 빚을 갚아 나가게 되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빚을 갚은 만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도로써 업장소멸이 거의다,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생의 빚을, 단계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생전예수재 기도 방법과 방편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스러운 방편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이제 생전예수재 기도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쉽고, 간편하게,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자들에게 드릴 생전예수재 기도의 중요성 책자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기도신청방법

생전예수재 기도 책자를 받으셔서 읽어보시고, 본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기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생전예수재 기도의 성취효과는 매우 크며,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써넣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불자들에게서 다른 좋은 기도도 많이 있지만, 이번에 한번 해 보실 만한 기도로써, 생전예수재 기도를 권해드립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괴로우셨다면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